

# 전남 '닮은꼴 축제' 통폐합 해야

■ '문화관광 지자체 혁신포럼' 지적

상당수가 소재 빈약 지역 특성 못 살려

축제 활성화 조례 제정 경쟁력 키워야

전남에서 치러지는 축제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정형화되어 있으며 축제 소재도 빈약하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평가체계를 개선 하며 비슷한 축제를 통폐합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광주전남문화연대 김지원 사무국장은 14일 동신대 문화관인력양성 사업단 주최로 동신대에서 열린 '문화관광 지자체 혁신포럼'에서 '지역 축제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도 내 22개 시·군이 매년 46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대다수 축제의 행사프로그램이나 공연, 먹거리 등이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정형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축제에 필수적인 관광상품과 기념품이 미흡한데다, 공연 행사 참가자는 물론 방문객들에게도 최소한의 편의·휴게시설을 제공하지 못하는 행사를 적지 않는 등 지역축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역 축제의 60%가 자연원을 소재로 하는데 그치는 등 지역의 특성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살릴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축제가 행정기관 주도로 개최되고 있어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역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에 따라 축제의 안정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축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축제조례 제정을 의무화해야 하며, 기존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해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축제 평가를 통해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대 이장주 관광경영학과 교수도 '지역축제의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의 축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장기발전계획이 부족하고,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벤트성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수도권 인접지역의 축제와 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축제 전문가가 부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새롭고 창신한 축제가 발굴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참여정부 4년간 공무원 수 4만8천명 늘었다

'국민의 정부' 감원 수 만큼 다시 늘어 100만명 육박

'역대 정부별 증감 추이'

말)의 88만5천164명에 비해 4만8

천499명, 5.67%가 늘어난 규모다.

참여정부 들어 4년간 공무원의 숫자가 4만8천499명이나 늘어나 전체 공무원이 9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은 참여정부 4년간 무려 3만6천여명이나 증원, 정부 부처 가운데 공무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역대 정부별 공무원수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월말 현재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합한 참여정부의 전체 공무원 수는 93만3천 6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의 정부' 임기말(2003년 2월말) 88만5천164명(3만4천40명 감소, -3.7%)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공무원의 증가

수와 증가비율의 경우 6공화국이

56만1천952명(3천163명 감소, -0.

56%) ▲ 국민의 정부 57만6천223

명(1만4천271명 증가, 2.54%) ▲

참여정부는 6공화국에 이어 증

가율이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나



국민의 정부 당시 감원된 인원을 약간 넘는 수준에서 증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수는 ▲ 5공화국 47만7천146명

▲ 6공화국 56만5천115명(8만7천 969명 증가, 18.44%) ▲ 문민정부

56만1천952명(3천163명 감소, -0.56%) ▲ 국민의 정부 57만6천223

명(1만4천271명 증가, 2.54%) ▲

참여정부는 6공화국에 이어 증

가율이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나

100만명 육박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보육교과서'로 가르친다

정부 차원 표준화

그동안 체계적인 교육 과정 없이 운영되던 어린이집에 교과서 격인 '표준보육과정'이 보급된다.

정부는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보육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표준

보육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해 올해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를 위한 보편적인 보육 내용을 결정해 배포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그동안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이 이루어져 왔다. /연합뉴스

국민의 정부 4년간 공무원 수 4만8천명 늘었다

- 김종우

## 수출로 벌어들인 100원 유학·여행에 62원 쓴다

서비스 적자 작년 188억달러 사상최대

우리나라는 지난해 외국과 물건을 사고 팔면서 벌어들인 돈 100원 가운데 62원을 해외여행과 유학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은 518억7천만달러였고 서비스 수입은 706억4천만달러였으며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187억6천만달러로 전년보다 37.4% 증가했다. 지난해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다.

여행, 유학·연수 등을 포함한 여행서비스의 경우 수출은 53억2천만달러로 전년보다 8.3% 감소한 반면, 수입은 182억4천만달러로 18.4% 증가해 여행수지 적자는 34.6% 늘어난 129억2천만달러에 달했다.

여행이나 유학·연수로 지출한 돈은 지난해 상품수지 흑자인 292억1천만달러의 62.4%를 차지해 지난해 우리나라가 외국과 물건을 사고 팔면서 벌어들인 돈 100원 가운데 62원을 해외여행과 유학, 연수 등의 비용으로 사용한 셈이다. /연합뉴스

## "바다에 인공섬 만들어 쓰레기 매립"

해수부 추진 검토

바다에 인공섬을 만들어 쓰레기 를 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진 해양부 장관은 14일 "바다에 인공섬을 만들어 최종폐기물을 매립하는 방안은 외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상당히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아직은 초기 구상 단계지만 기

술적, 제도적으로도 실현 가능성성이 높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국제적으로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돼 2011년까지 해양투기량을 현재의 50%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민간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되 더이상 재활용할 수 없는 최종폐기물을 해상에 매립장을 조성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피카소 그림 감상

스페인을 국빈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13일 오후(한국시간) 마드리드 시내 소피아 미술관을 방문, 피카소의 명작 '게르니카'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인 합사 철회하라"

야스쿠니 상대 첫 소송

유족대표, 이름말소 등 요구

일본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를 상대로 한국인 합사를 철회하라는 소송이 오는 26일 제기된다. 한국인 유족들이 일본 정부가 아닌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는 14일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이희자씨를 비롯한 유족 대표 4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상

대로 한국인 희생자 10명의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오는 26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10명의 원고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 합사자 명단(신사부)에서 원고 가족 이름 말소 ▲ 원고 1인당 위자료 500만엔 지급 ▲ 언론을 통한 무단 합사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소송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교정직 특재

2월 15일 개강

시험예정일	6월경(예상)-2006년에는 6월18일								
시험과목	협사소송법/교정학(객관식필기)								
모집인원	900여명(예상)								
응시연령	1966. 1. 1. ~ 1987.12.31. (男군근무년도추가계산)								
신체조건	• 신장 : 남자 165cm, 여자 154cm 이상 • 체중 : 남자 55kg, 여자 48kg 이상인 자 • 흉·위 : 신장의 1/2이상인 자 •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이상 • 색신 : 색맹이 아닌 자								
강의시간표	<table border="1"> <thead> <tr> <th>이교반 (19:00~22:00)</th> <th>주말반</th> </tr> </thead> <tbody> <tr> <td>목</td> <td>협사소송법</td> </tr> <tr> <td>금</td> <td>교정학개론</td> </tr> </tbody> </table>			이교반 (19:00~22:00)	주말반	목	협사소송법	금	교정학개론
이교반 (19:00~22:00)	주말반								
목	협사소송법								
금	교정학개론								
2월 8일 19:00에 시험오리엔테이션 있음									

EBS노랑진 ALL STAR 강사진 출강  
국비 지원 공인증개사(주/야) 2월 무료  
주택관리사(야간)

메가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26-5050

상속한정승인공고

방 김덕남(520619-1668418)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체권자에 대한 공고와 한정승인 사항에 따른 관할 법원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 체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재판부 2007년 2월 15일  
공고인: 한경숙, 김주희  
한정승인수리일: 2007. 2. 7  
공고기간: 2007. 2. 15 ~ 2007. 4. 14  
연락처: 광주 서구 생활동 957-12  
한경숙(011-572-8890)

합명 공고  
2007년 2월 14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제이엔루이지'는 대체로 건설 주식회사 '을'을 학습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을' 회사는 학습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학습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권자 및 주주께서는 본 공고일의 이익일인 1개월 이내에 계약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7년 2월 15일  
"을" (주)제이엔루이지  
서울 강남구 퍼포먼스 237-18 세일빌딩 6층  
대표이사 전 부 중  
"을" 대표건설 주식회사  
전남 광성군 진영읍 율곡로 282-60  
대표이사 전 대 중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업금·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0